

### “동조여래입상은 반환 후 환수해야”

제자리 찾기, 1일 기자 회견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에 반입된 국보급 불상 2점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불상 1점에 대한 일본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는 4월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상 2점 중 하나인 동조여래입상의 일본 반환을 촉구했다.

해문 스님은 “일본 소장처가 충남 서산 부석사로 밝혀진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달리 동조여래입상은 불법적 유통경로를 입증할 기록이 전혀 없다”며 동조여래입상의 일본 반환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조여래입상이 ‘양심과 진실’의 힘에 의해 일본으로 되돌려진다면 식민지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부터 빼앗아간 ‘민족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화엄사 주지후보에 영관스님 선출

3월 28일 산중총회서

조계종 제19교구 분사인 화엄사 주지에 영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19교구 화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사)는 지난 3월 28일 경내 화엄사에서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제20대 주지후보에 영관스님(천은사 주지)을 선출했다.

이날 주지후보 선출은 최근 변경된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처음 실시된 선거로, 2차 결선 최종 개표결과 영관 스님은 전체 140명의 투표자 중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유효투표 중 80표를 얻었고, 결선에 나선 중두 스님은 8표, 무효가 1표였다.

영관 스님은 개표가 끝난 후 “중종스님들 잘 모시고, 교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영관스님은 1984년과 1988년에 범어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으며, 화엄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나왔다. 현재 화엄사 부주지와 구례 천은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교방송 사태, 어디로 가나

이재원 사장 해임안건이 상정됐던 불교방송이사회가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안을 받았다. 불교방송이사회는 3월 28일 서울 가든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 80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영담 스님 해임안을 발의하고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재소집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요청은 대한불교진흥원측 재가 이사들 중심의 11명 이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날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차기 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정관상 이사장 해임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어,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여부에 교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총 22명 이사 중 공석인 중앙승가대총장과 총상 스님(불국사), 춘광스님(천태종) 등을 제외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뜨거운 감자는 이재원사장 해임안과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였다.

오후 2시부터 6시가 넘는 4시간여 걸쳐 진행된 이사회 후 브리핑에 나선 김윤수 이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는 “소위원회 활동보고는 이재원 사장의 해임사유는 없고, 뮤지컬 원효나 불교방송후원금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어 김 이사는 “특히 뮤지컬 원효 제작 당시 불교방송 모금액 7억1천7백만원에 포함된 총 제작비 10억 1천7백만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이사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영담 이사장 스님 해임 안건 상정 배경에 대해 “법인운영과 뮤지컬 원효 제작비 문제가 주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 “이재원 사장 해임 사유 없다” 결의 이사 11명 이사장 해임안 발의 뮤지컬 제작 등 이사장 문제 제기 15일 내 이사회 소집 후 결정

특히 이사장 영담스님 해임안은 이날 이사회에서도 거론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 이사는 “소위원회 보고 결과에 대한 영담 이사장의 반박 발언 직후, 진흥원측 이사 3명이 즉석에서 이사장해임 안건 상정을 발의했지만 이사장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이사회장의 상황을 전했다. **실정상 이날 이사회 결의만 놓고보면 불**

교방송 이사회가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재원 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진흥원측 이사들이 포함된 재가 불자 이사들이 현재 겪고있는 불교방송의 경영난과 스님 진행자 사퇴 등의 파행 운영 책임을 이사장 영담 스님에게 묻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번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한 불교방송 임시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차기 이사회는 4월 13일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된다. 또한 모든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결정된다. 만일 총 22명 이사중 과반수인 11명의 이사가 참석하면 이사회가 성원되는 셈이다. 또한 이날 6명이상이 찬성하면 이사장 해임안도 가결된다.

이날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등으로 역공을 당해 오히려 해임 위기에 처한 영담 스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임원(감사) 선임의 건,감사 보고의 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사장 해임의 건, 방송파행 및 경영혼란에 대한 사장 징계의 건 등이 상정됐으나 결의된 사항 없이 모두 차기 이사회로 미뤄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후배 스님에게 초기불교 바른 이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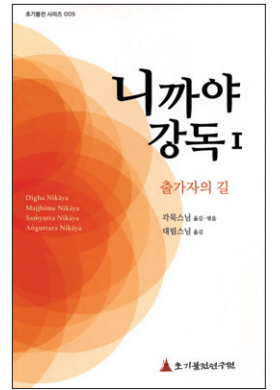
초기불전연구원, 승가대학 필수 교과목 교재 출간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중 필수교과인 초기불전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과 대립 스님이 번역해서 엮은 《니까야 강독 I, II》를 승가대학 교재로 출간했다.

《니까야 강독 I, II》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승가대학 표준 교과목에 맞춰 출간된 것으로 초기 불교에 대한 중단 교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교재는 각 권마다 ‘출가자의 길’과 ‘교학과 수행’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학인 스님들에게 필요한 초기경전의 경구를 부제 맞춰 경전을 선별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 스님은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니까야 강독I》을 엮었다. 그래서 부제도 ‘출가자의 길’로 정했다”며 “책의 1편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경전을 모았으며, 2편은 출가자의 자세를 설한 경전을, 3편은 부처님의 아들 라



홀라와 관련된 경전을, 4편은 ‘계·정·혜’를 주제로 출가자가 닦아야 할 삼학에 관련된 말씀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니까야2》에 대해 “초기불교 교학의 기본 주제인 5온·12처·18계·4성제·12연기를 주제로 경전을 선별했으며, 초기불전에 정리된 37보리분별과 사마타, 위빠사나에 관계된 경전들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 경전에는 짧은 해설도 덧붙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승가대학 교재이지만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법정 스님 관련 출판 더 이상 허용 안돼”

맑고 향기롭게, 스님 서적 판매 및 관련 출판 중지 요청

“그동안 풀어놓은 말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고요.”

자신의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던 법정 스님의 유지가 일부 서점과 출판사로 인해 바래지고 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3월 27일 “법정 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스님의 글과 사진을 인용해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와 스님의 저서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서점에게 중지를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스님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이 계속 무단 발행, 배포된다면 법정스님 유언의 뜻을 저버리게 되며,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유언 내용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위해 (사)맑고 향기롭게는 현재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적 중개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재고서적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이용하락을 받지 않고 법정 스님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 자진신고는 출판사명, 출판물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신종일 기자**



### ‘정전 60년’ 한반도에 평화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보행위원장 자승, 상임운영위원장 수봉)는 3월 26일 부산 범어사에서 ‘한반도평화회원 수목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목재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봉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불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박경수 부산지사장**

### 입학예배 대광중 특별 장학 실시

‘중평위’ 요구... 서울시 교육청, 시정 조치 진행

입학식을 예배 형식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 동대문구 대광중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이 이뤄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광중의 입학 예배에 대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중평위) 시정 조치 요구에 회신 공문을 3월 27일 보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3월 7, 8일 2회에 걸쳐 대광중을 상대로 특별 장학을 실시해 학생의 자율적 참여 하에 종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3일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위해 종교 과목 편성 시 교양 성격의 타과목을 복수편성해야 하며, 종교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침을 안내했다”고 시정 조치 사안을 설명했다.

조계종 중평위는 일반 학교인 대광중 입학식이 예배형식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3월 7일 서울시 교육청에 ‘해당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학교 내 종교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종교차별 예방교육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손에잡히는참선, 지혜의체험** **금강단식**

## 3,6일간-깨달음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완전무결한 본래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참선**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환량25kg

<b>수련회 6일</b> 4월19일금~24 5월 3일금~ 8	<b>선 회 3일</b> 4월19일금~21 5월 3일금~ 5	<b>깨달음이란?</b> 머리가 둔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	---	--

**단식**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1644-5266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서울 혁신적인 현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 보고 · 듣고 · 배우는~

### 첨단혁명의 간편한 현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영불(佛), 영송(念誦) 모음**

- 영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분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법륜,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징승엄시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영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